

# 예이카드 vs 제로모바일2 vs 모두의 쇼핑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발급비용은 없고 혜택은 더 늘리고 신한, OTT·배달앱 등 비대면 집중 현대, 배달앱 등 결제액 1.5% 할인 하나, 디지털상품 역대급 혜택 승부

카드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낳은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트렌드 확산에 맞춰 실물 카드가 없는 모바일 전용 카드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카드 발급부터 이용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실물 카드 발급 비용이 줄어든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편결제 등 모바일을 활용한 결제 환경이 보편화된 것도 한몫했다.

신한카드의 '예이 카드'가 대표 주자다. 신한페이판 앱 내 카드 플레이트에 미니언즈 캐릭터가 움직이는 '움짤(웹 공간에서 움직이는 짧은 이미지)'을 넣었다. 혜택도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배달앱, 온라인몰 등 언택트 시장에 집중했다.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제로'를 모바일 카드로 리뉴얼한 '제로 모바일 에디



하나카드의 모바일 전용 카드 '모두의 쇼핑' (왼쪽)과 신한페이판 앱 내 카드 플레이트에 미니언즈 캐릭터 움짤을 넣은 신한카드의 '예이 카드', 카드업계가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실물 카드가 없는 모바일 전용 카드를 속속 내놓고 있다. 사진제공 1 하나카드·신한카드

션'을 선보였다. 10여 년 간 스테디셀러 카드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현대카드 제로'의 혜택을 시대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할인형과 포인트형으로 구성했으며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0.7% 할인 혹은 1% M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온라인몰, 배달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등 주요 디지털 특화 영역에서 결제금액의 1.5% 할인 혹은 2.5% M포인트 적립 혜택을 준다.

하나카드는 모바일 전용 카드 '모두의 쇼핑'을 출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나카드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쇼핑 업종에서 기본 혜택을, 반값부스터 이벤트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실물 카드를 원하는 고객은 5000원의 수수료료를 내면 받을 수 있다. 임동우 하나카드 상품 개발 담당자는 "모두의 쇼핑은 하나카드의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 첫 상품으로 디지털 상품에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해 역대급 혜택으로 승부할 것"이라며 "향후 구독경제와 반려동물 관련 소비를 겨냥한 '모두의 구독'과 '집사의 기쁨'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창의적이고 유연하게”...우리은행, 유니폼 없앤다

1일부터 전 직원 복장 자율화 시행 권광석 행장 '제로베이스 혁신' 일환

우리은행이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장 자율화를 시행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직원의 개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업 특성상 고객응대에 적합한 복장,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단정한 복장 착용 등을 권장한다.

이번 복장 자율화는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제로베이스 혁신'의 일환이다. 권 행장은 3월 취임사에서 3대 경영방침으로 영업문화 혁신, 조직 안정, 고객 신뢰 회복 등을 제시하며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권 행장은 최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포스트 코로나19로 대변되는 언택트와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하는 시대



자율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우리은행 본점 직원들. 사진제공 1 우리은행

흐름과 세대 변화에 발맞추고 은행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옷을 자유롭게 입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은행으로 탈바꿈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 NH농협은행 '제10기 NH고객패널' 모집

NH농협은행이 7일까지 '제10기 NH고객패널'을 모집한다.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함이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금융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자는 11월까지 NH농협은행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인터뷰와 토론 회에 참여한다. 활동비 지원과 우수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함용문 마케팅본부 부행장은 "고객패널의 제안사항을 금융서비스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고객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 “모바일 게임 대회, 이제는 호텔 룸에서 즐겨요”

L7강남, 27일 포트리스M 대회 개최

레스토랑 투-고 서비스, 룸 홀트(홀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번에는 객실서 모바일 게임 대회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언택트(비대면) 콘텐츠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호텔의 자체 서비스를 언택트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이어 최근에는 전혀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 호텔 L7 강남은 27일 모바일 전략 슈팅 게임 포트리스M을 주제로 하는 게임 대회 'L7 GAME NIGHT'을 진행한다. 에이프로젠게임즈와 손잡고 진

행하는 행사로 호텔 객실에서 포트리스M으로 다른 사람과 대결하는 대회이다.

호텔 체크인 후 대회 참여권을 받아 자기 객실에서 포트리스 M 2대2 복식 경기에 참가하면 된다. 예선은 객실 간 50장 단판 토너먼트이고, 본선은 특별대회장으로 꾸민 4개 스위트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다. 대회는 게임채널 OGN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생중계한다.

모바일 게임대회에 참가하는 객실 패키지는 7일부터 100실 한정으로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2020년 세종대왕 소헌왕후는 누가 될까”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상명아트센터 대신홀에서 열린 2020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서울강북지역 본선대회 출전자와 관계자들이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4월 1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지역본선 대항전을 시작했다. 지역본선을 거쳐 선발된 진출자는 8월 22일 서울 그랜드 위커펀호텔에서 열리는 최종결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을 널리 알리고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사진제공 1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일(화) 음력: 4월 1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p>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파도</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p>	<p>행운색: 남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비바람</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무지개</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가을비</p>	<p>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안개</p>
<p>몸과 마음이 굳어져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잘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오늘은 쥐가 쥐를 만난 날이다.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p>	<p>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본성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오늘은 육해상 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p>	<p>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운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더 돋보일 수 있다. 음주로 인한 남비에 주의하라. 오늘은 재실일이다. 교묘한 술책으로 주변의 실력자를 움직여 큰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다. 또는 내가 당하기도 한다.</p>	<p>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집안일이나 친척문제로 바쁜 일이 생겨난다. 토끼가 쥐를 만나면 자묘형으로 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 이성문제, 탈선을 조심하라.</p>	<p>시시한 일들로 인해 휘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 변화가 있는 날이다. 대인관계에 신경쓰라. 용이 쥐를 만나면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항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서서히 움직여라.</p>	<p>무슨 일에 있어서나 의견상의 화해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은 뱀날이다. 뱀피는 활기왕성하여 무언이 시작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주는 브레이크를 거는 형국이다.</p>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p>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해·번개</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싸늘</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쾌청</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진눈깨비</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우비</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먹구름</p>
<p>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나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로 인해 신경 써야 할 일이 있겠으나 무난히 해결되겠다. 오늘은 말날로 재실일이다. 말은 쥐를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p>	<p>진취적인 마음가짐과 결단력을 발휘하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분주한 활약이 기대된다. 주변의 도움으로 바라는 바가 성취될 수 있으니 주변인들과의 언쟁이나 다툼에 주의하라. 사업 면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겠고 의외의 성과가 기대된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 또는 시험준비 과정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p>	<p>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사업상 또는 사적인 일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원숭이때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하여 오늘을 쥐날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격이다.</p>	<p>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하고 일어나는 기운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p>	<p>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행운이 오게 되고 뜻하지 않은 투자 운이 생기며 선배나 주위의 도움으로 원하던 일이 성사될 것이다. 오늘은 좋은 운의 날이다. 오늘 개피생은 머리를 써서 기발한 묘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확실히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p>	<p>피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끈고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팽팽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p>

##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341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경제산업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현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